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산 넘어 산'

추진 9년째...생업 종사 주민들·인접 구례군 반대로 난항 시, 서울대 남부학술림 논란 일단락 속 주민 설득 등 고심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구례군과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2010년 7월 광양시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정 건의를 하면서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백운산을 보호하는 취지였지만 광양시는 2010년 법안화한 서울대가 백운산에 있는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여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양 백운산 국립

공원지정추진위원회는 2013년 11월 시민 8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립공원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광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광양시의회 등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무상양여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남부학술림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지난 5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제로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하며 무상양도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왔던 백운산지킴이협의회는 광양시에 "TF팀을 구성해 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광양시는 인접한 구례군과 백운산에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백운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례군도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구례군을 설득해서 함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례군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1만1578ha로 이 가운데 구례지역은 25.8%인 2990ha에 달한다.

구례군이 반대하면 국립공원 지정은 사실상 힘들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 "구례군과 백운산 인근에 사는 주민과 협의 없이 국립공원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립공원이 되면 구례지역에 5만8587㎡의 사유지가 편입돼 사유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백운산에서 고로쇠 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 만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새 관광 수요층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

광양시, 시니어 관광 활성화 위한 종합포럼 개최

광양시는 새로운 관광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관광시장을 대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호텔 락히 연회장에서 광양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시니어 관광 활성화 모색을 위한 관광 종합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새로운 소비주체로, 활동적이며 건강한 어르신들을 지칭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남도바닷길”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경희대 변정우 교수의 ‘시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목포대 심원섭 교수의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관광분야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의 ‘시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목포대 심원섭 교수의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관광분야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의 ‘시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목포대 심원섭 교수의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관광분야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 개장 본격 운영

치유정원·숲길·풍욕장 등 55ha에 다양한 시설 조성

백운산 자락 천년의 숲에 조성한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가 지난 28일 개장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개장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정인화 국회의원,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양시 휴양림사업소에 따르면 ‘백운산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이 골고루 자라고 있는 백운산 천년의 숲에 2015년부터 1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55ha 면적에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

마당, 풍욕장, 치유숲길 등 치유와 힐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광양시 휴양림사업소는 백운산 치유의 숲에 분포한 여러 수종의 나무에서 배출하는 음이온, 피톤치드 등 다양한 환경요소와 숲의 지리적, 생태적 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일반인, 청소년, 노인, 근로자, 장애인 등 연령, 계층 및 직업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한결길 두결길’, ‘다福 다福’, ‘여우뿔 놀자’, ‘솔가마길따라’, ‘짜木 짜木’, ‘오르樂 내리樂’으로 나눠 운영한다.

또 치유숲길은 봉황돛술길, 돼지꿈길, 여우오름길, 햇살마루길, 솔가마열길, 심산수양길 등 총 10km 6개 코스로 이뤄졌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백운산 자락 천년의 숲에 조성한 ‘백운산 치유의 숲’ 개장식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치유센터는 명상·요가, 향기테라피, 족욕 등을 운영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팀당 10-15명 단위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개인은 5000원, 15명 이상 단체는 4000원의 체험료가 책

정돼 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문의는 치유센터(061-763-8675, 8676)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 ‘빅데이터 경진대회’ 참신한 출품작 공개 눈길

김경수 대리 최우수상 영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개최한 ‘2019년 상반기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출품작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엔지니어들이 가진 작업 현장의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법을 결합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광양제철소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가속

화하고자 2017년부터 대회를 개최해왔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광양제철소 엔지니어들은 올해 1월부터 대회 참가를 위한 인원 선별과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사내 교육 콘텐츠를 통해 데이터 통계 및 분석 기초 등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받았다.

또 사내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이 빅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회는 총 6명이 경연을 펼쳐 ‘두개 불량 및 통관성 향상을 위한 마무리 압연 온도 모델 개발’을 주제로 효과성, 활용성, 발표

력 등 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열연부 김경수 대리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압연설비부 임용호 대리와 제강부 윤선혁 대리, 장려상은 선강설비부 황민수 사원, 도급부 윤지선 사원, 발전부 문현익 대리가 수상했다.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은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제철소가 완성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면서 “광양제철소가 다가올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함께 작업 현장의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27일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열연부 김경수(왼쪽) 대리가 이시우(오른쪽) 제철소장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시 이진학 팀장, ‘도시재생 청년 캠프톤 워크숍’ 대상

광양시는 최근 춘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도시재생뉴딜 청년 캠프톤 워크숍’에 참가한 이진학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이 대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 도시재생뉴딜 청년 캠프톤 워크숍은 전국에서 모인 도시재생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100여명의 청년이 창업가, 활동가와 현장답사 후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책과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톤은 캠핑(Camp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를 말한다. 이번 청년 캠프톤 워크숍은 참가한 청년들과 퍼실리테이터가 조를 이루어 1박

2일 동안 현장답사, 아이디어 회의, 기획, 결과물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총 5개팀을 선정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이진학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은 조장으로 아이디어 회의, 기획, 결과물 제작, 결과물 발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진학 팀장은 “이번 청년 캠프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우리시에 접목해 행정,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샤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